

지난해 '광주시장' 도전한 5인방, 내년 총선 기상도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4·15 총선 불출마

민형배·이병훈·양향자·최영호 총선 도전장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시장에 도전한 5인방 중 4명이 내년 4·15 총선에 나란히 출마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는 이용섭·강기정·양향자 등 3명으로 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는 강기정 예비후보와, 이병훈 예비후보는 이용섭 예비후보와 단일화했다.

경선 끝에 이용섭 예비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 본선에서 광주시장에 당선됐다. 지방선거 이후 광주시장직에 고배를 마신 5인방의 행보는 같았다. 강기정 전 국회의원은 지난 1월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주 북갑 3천 의원을 거쳐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되면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예상됐으나 최근 출마를 접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마음을 굳혔다.

강 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그동안 체급을 높여 내년 총선에 도전한다.

그동안 체급을 높여 내년 총선에 도전한다.

◁민형배, 청와대 비서관 역임... 광산을 출마

민형배 전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하고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한다.

광산읍은 지역 유일의 여성 국회의원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3선을 노리는 지역이다.

박시종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김성진 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민주당 후보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조직력과 인지도, 경력 등에서 민 전 비서관이 타 후보들보다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높아 총선에서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역임...동남을 출마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지방선거 이후 민선 7기 광주시 초대 문화경제부시장을 역임하고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남읍에 출마한다.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시장에 도전한 5인방. 그중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제외한 4명이 내년 4·15 총선에 나란히 출마한다. 왼쪽부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민형배 전 청와대 비서관, 이병훈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

이 전 부시장은 재임 기간 광주형 일자리와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광주문화관 건립 등 문화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남읍은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의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지역구다. 동구에서만 내리 3선을 지낼 정도로 조직력과 인지도가 높다.

이 전 부시장은 박 의원과 지난 20대 총선에서 맞붙어 고배를 마신 적이 있어 이번이 설욕전이다. 변수는 민주당 '전략공천' 가능성이다.

민주당은 지난 9월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과 광주교법 부장 판사 출신의 이광범 변호사를 후보에 올려 전략공천을 가능한 것으로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역임...서구를 출마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이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하고 내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에 출마한다.

양 전 원장은 광주여상을 졸업한 뒤 삼성전자에 입사, 임원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대 총선에서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영입해 화제가 됐다.

인재개발원장 퇴임 후에는 민주당 일선경제전략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당내 활동을 해왔다.

서구는 6선의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지역구다. 천 의원은 'DJ' 이후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

인으로 꼽힐 정도로 '네임 벨류'가 있어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양 전 원장은 천 의원과 맞붙어 패배했다.

민주당 내 경쟁자는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다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남재 부위원장과 최희용 전 참여자치21 대표 등이 거론된다.

◁최영호, 민주당 동남갑지역위원장...동남갑 출마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은 지방선거 후 민주당 동남갑 지역위원장을 맡아 말바닥 민심을 다졌다. 동남갑은 3선의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 지역구다. 민주당 내에서 만 운영역 전 청와대 행정관, 이 정치 한국전력 상임감사 등 입지 예정자가 9명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최 전 구청장은 조직력과 인지도 등에서 타 후보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최근 경찰 수사 결과가 변수다.

최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 남구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구청장은 전혀 사실무근에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어 최 전 구청장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갈지가 관심사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도전했던 후보들이 대부분 체급을 높여 내년 총선에 도전한다"며 "광주에서 내년 총선은 민주당 우세가 예상되지만 당내 경선부터 본선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변혁, 발기인대회 열고 신당 창당 본격화...준비위원장 하태경



하태경 "새로운보수, 개혁적보수+합리적중도 함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인사들이 8일 '변화와혁신 중앙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변혁 측은 이날 발기인대회를 기점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올해 내 창당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 중앙당 발기인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인사들이 주축이 된 '변화와혁신'은 이날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하태경 의원을 선출했다.

하태경 의원은 "우리 변혁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보수정당, 청년들이 이끌어가는 보수"라며 "새로운보수란 개혁적보수와 합리적중도가 함께하는 중도 세력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보수"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중도층이 갈 곳이 없고 울드보수는 더이상 확장성이 없다"며 "새로운 보수는 새로운 큰 집을 짓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없다. 새 보수당이 새 보수를 재건하면 총선에서 필승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혁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게된 유승민 의원은 내년 4·15 총선에서 현재 지역구인 대구(동구)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유 의원은 "광주의 딸 권은희 의원은 광주에서, 부신의 아들 하태경은 부산에서, 제일 어려운 우리 대구의 아들 유승민은 대구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